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즉 ‘좋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이다.
- ②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 ③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다.
- ④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 ⑤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다.


2. (가) 사상의 입장에서는 긍정, (나) 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자신의 수양을 경(敬)으로써 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이를 편안하게 한다. 요순(堯舜)도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항상 부족하다 여기고 노력하였다.
 (나) 배우면 날마다 쌓이고, 도에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면 무위(無爲)에 이른다. 무언가 일삼으려 하면 오히려 부족하며, 일삼지 않아야 천하를 취할 수 있다.

- ①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보아야 하는가?
- ②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③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④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⑤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3.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운명적인 여성성이라는 속임수로 여성을 지배하고 강제했습니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출산마저 사회는 모성의 의무로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면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 합니다. 이때 여성은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하고 남성은 계속 지배하려 하므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갈등은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 존재로서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져 새로운 여성이 탄생해야 끝이 납니다.



- ①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 ② 여성의 의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 ③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인가?
- ④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통해 실존적 자유를 회복해야 하는가?
- ⑤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이 여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동물 복제는 멸종 동물의 복원과 희귀 동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식량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복제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일’로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갑: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을: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 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① 동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②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 ③ 동물 복제는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기여하는가?
- ④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⑤ 인간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5.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학자들은 과학이 일정한 규칙하에 인과적 필연성을 검증하는 순수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과학은 인식 대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자연은 오직 인과적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적 응용이 과학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과학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의심스러울 때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귀 기울여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보 기>

ㄱ. 과학 기술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ㄴ. 과학 기술자는 연구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ㄷ. 과학 기술자는 기술적 응용에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ㄹ.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 책임보다 내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목민관은 책객(冊客)*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관부의 회계는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모두 기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내의 친척과 친구를 단속하여 의심과 비방이 생기지 않도록 하되, 서로의 정(情)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을: 나라가 올바르게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들 중 통치자들은 그 어떤 사유 자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통치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을 보살펴야 한다.

* 책객: 고을 원에 의해 사사로이 채용되어 비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

- ① 갑: 공직자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 ② 갑: 공직자의 청렴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덕목은 아니다.
- ③ 을: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 ④ 을: 통치자는 시민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⑤ 갑, 을: 올바른 통치를 위해 다스리는 자의 사유 재산을 금지해야 한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진다. 이 제도의 체계에서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화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을: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 자연적 자산의 경우에도 개인들은 그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며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 ① 갑: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한다.
- ② 갑: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을: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다.
- ④ 을: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된 결과보다는 분배의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
- ⑤ 갑, 을: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거주라고 한다. 그러나 거주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낯선 공간에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거주는 특정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또한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이다. 이런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쏟아 붓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다.

- ① 거주는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장소에 속해 있는 방식이다.
- ②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주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 ③ 거주는 인간이 집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 ④ 거주는 친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얻고 삶의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 ⑤ 거주는 인간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9.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돕는 데 있습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갖출 때까지 유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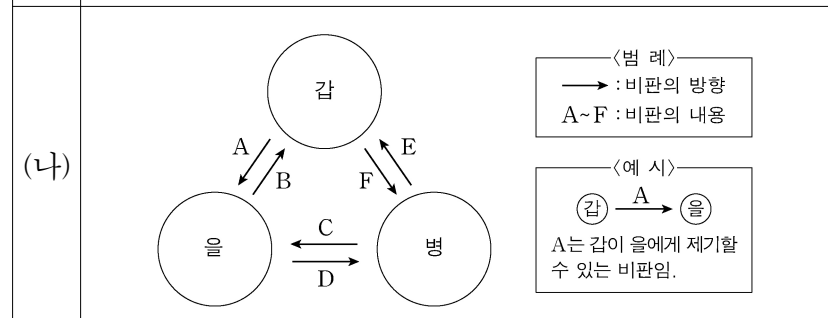
원조의 목표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은 적정 체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입니다. 빈민을 돕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 ① 갑: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의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갑: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빈곤 해소 시점까지만 행해져야 한다.
- ③ 을: 원조의 대상은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을: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갑, 을: 원조 목표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형벌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p> <p>을: 형벌은 해악이다. 하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는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p> <p>병: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 사회의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는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p>
-----	--



- ① A: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D: 범죄 피해자의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임을 간과한다.
- ④ F: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 ⑤ C, E: 형벌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대해 항거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는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을: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이다.
- ② 갑: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사회적 이익과 해악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을: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시민 불복종 참여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특성이다. 우리가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사회적 관행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덕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러한 선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을: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다. 이것은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외경에 의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 ① 갑: 인간은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갑: 덕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이다.
- ③ 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다.
- ④ 을: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 ⑤ 갑, 을: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동기와 감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13.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군자는 밥이 완성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식재료의 출처를 알아야 하고,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밥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나)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공양(供養)을 받는다. 밥 먹는 것은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는 것, 청정(淸淨)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 ① (가): 중생의 불성(佛性)에 유념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 ② (가):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음식의 양은 많을수록 좋다.
- ③ (나): 음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다.
- ④ (나): 음식을 먹는 것이 수행의 연장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
- ⑤ (가), (나):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14.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 개인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표현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성 댓글이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일탈 행위로서 해당 개인과 집단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이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익명성으로 인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제도적 규제보다 자율적 규제가 적절한 해결책임을 간과한다
- ③ 표현의 자유보다 해악 금지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하여 악성 댓글이 예방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5.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도덕 판단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어떤 이익이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을: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주체인 동물도 포함된다. 그들 각각은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 개별적 복지를 추구한다.
 병: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ㄴ. B: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ㄷ. C: 동물 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는 인간성 실현을 저해함에 있다.
 ㄹ. D: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는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현자는 사려 깊음을 통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을: 죽음은 진리 추구를 방해하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평생에 걸쳐 최대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영혼을 정화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 ① 갑: 죽음 이후에 비로소 선의 본질이 드러난다.
- ② 갑: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혼의 삶에 영향을 준다.
- ③ 을: 죽음의 순간에 육체의 소멸과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
- ④ 을: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지혜로운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오늘날 대중문화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제 대중문화는 변화 없는 반복적인 오락물을 생산하는 장사가 되었고, 문화의 소비자는 문화 산업의 객체가 되었다. 이처럼 산업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문화 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한다.

- ①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독창적 예술로 발전하기 어렵다.
- ② 문화 산업은 획일화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 ③ 문화 산업의 표준화된 양식은 문화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 ④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킨다.
- ⑤ 문화 산업은 예술을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로만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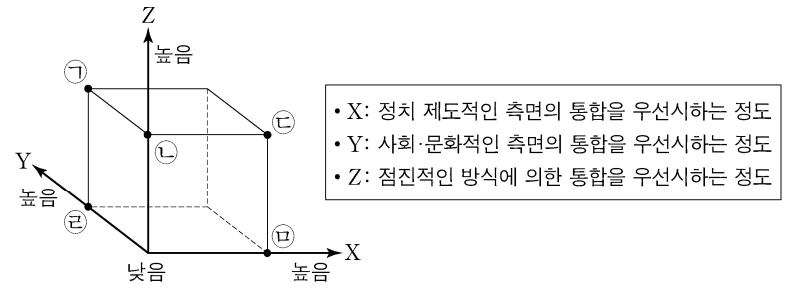
18.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존재인 국가들이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고, 세력 균형, 동맹, 비밀외교 등을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국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국제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나 국가들의 동맹이 우월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대해 패권적인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① (가):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 ② (가): 국가 간 동맹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군비 경쟁은 종식된다.
- ③ (나): 국제 관계에서 세력 균형은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 ④ (나):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와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 ⑤ (가), (나):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세계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19.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치적, 법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어 통일이 실현될 것이다.
 (나)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남북한의 불신이 해소되어 정치 통합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는 백성은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후에 백성을 선한 데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한다.
 을: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간보다 하등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보 기>

ㄱ. 갑: 국가의 통치자는 덕으로써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
 ㄴ. 갑: 백성들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ㄷ. 을: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할 수 있다.
 ㄹ. 갑, 을: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수립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